

# 醫學의 本質과 現實的 意義

(가톨릭의대 敎授  
가톨릭중앙의료원 醫務원장)

曹 圭 常

## I. 醫學의 倫理性

모든 文化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特히 醫學은 倫理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서는 어려운 理論을 말할 필요도 없이 옛부터 偉大하였고 尊敬받았던 醫師는 學問的인 면에서만 아니라 倫理的인 態度에 있어서도 훌륭하였고 또한 醫學은 人間의 가장 貴重한 生命과 病苦를 救助하는 學問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할수 있겠다. 그러기에 近代醫學이 이루어지기 以前부터 醫療는 人類의 精神으로서 여러가지 方法으로 病苦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尊敬을 받아왔던 것이다.

醫學이 지너온 이 理想은 社會道德으로서 온갖 歲月동안 涵養되어 善行으로서 行하여져 왔는데 高度의 科學의 發展과 이에 따르는 社會의 變遷은 現代醫學을 한 技術과 職業的인 生活의 方式으로서 다루어지게 되어 때로는 道德의 善惡에 대한 區別마저도 模糊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近者 이러한 混亂된 現代社會 속에 있어서도 새로운 道德과 倫理觀에 立脚한 醫學本然의 理念을 찾고자 하는 努力이 일어나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醫學倫理學者인 「벨날되」는 倫理를 定義하여 人間의 行爲의 道德性을 自然의 理性의 빛속에서 檢討하고 批判하는 學問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理論的, 道德的, 眞理를 思索할 뿐 아니라 實踐함을 뜻하는 것이다.

斷的으로 醫學倫理는 患者를 取扱하는데 있어 道德的인 規制라고 볼수도 있으나, 이것은 더 나

아가서 醫師가 道德의 善惡을 判斷하며 理想을 實踐하는데 있어서의 方向을 設定하는 基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道德의 善惡의 判別은 客觀的이며 科學的인 精神과 態度로서 判斷하여야 할 것으로서 어떤 偏見이나 잘못된 推論으로서 斷定하여서는 안된다.

醫學은 大衆을 爲한 學問이다. 그러나 醫學에 있어서의 善의 規定을 單純히 個人이나 共同體의 有益이라고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全體主義的 思想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例컨대 戰爭中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捕虜들에게 人體實驗을 한 行爲도 善으로 볼 수 있다던가 많은 사람을 爲하여서는 一部 사람의 生命을 殺生할 수 있다던가 하는 잘못을 저지러 수 있기 때문이다.

人間行爲의 善惡判斷은 좀더 높은 大元에서 自然의 法則에 根據를 두고있다. 自然法則이란 우리가 듣기에 莫然한 것 같으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大自然을 볼 때 森羅萬像은 偶然한 것이 아니라 嚴格하고도 調和된 法則下에서 秩序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는 自然이 지니고 있는 眞理를 알아 이에 順應한다는 것이다. 人間이 가진 生에 대한 本性이나 素質도 人間의 生理와 生化學的 諸現象을 알아 냄으로써 이속에 숨은 自然의 法則을 認識하게 된다. 人間은 올바른 本性을 認識하고 正當한 判斷下에 良心과 自由意志로써 行動하여야 한다.

倫理가 지닌 眞理의 確實性은 科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哲學的 確實性을 가지고 證明할 수 있는 것으로써 假令 實驗的으로 醫學倫理가 不認될 경우 殺人, 傷害, 虛僞등 人類의 幸福이나 社

會秩序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倫理的인 判斷에 있어서도 科學과 마찬가지로 過誤를 犯할 수도 있으나 科學에서 여러 사람이 認定하는 結果는 움직일 수 없는 眞理로서 받아들여듯이, 倫理에 있어서도 客觀的 眞理로서 오랜 歲月 동안 醫療人이 간직하여 온 倫理的 眞理는 醫學倫理로써, 時代와 場所를 超越하여 脈脈히 傳하여 내려오고 있다.

醫學의 始祖로 볼 수 있는 희랍시대에 쓰여진 <「히포크라테스」 全書>는 自然속에 있어서의 人間에 대하여 科學의 일 뿐 아니라, 倫理的인 面에 있어서도 確固한 見解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科學文明이 高度로 發達된 오늘에 있어서도 움직일 수 없는 여러 眞理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醫師가 되는데 있어서 自己의 生涯를 人類奉仕에 바칠 것을 誓約하는 『히포크라테스』의 宣誓는 爲學을 教授하여 준 스승에 대하여 感謝하며, 良心과 品位를 가지고 醫業의 高貴한 傳統과 名譽를 지키며, 同業者를 兄弟처럼 여길 것을 約束하며, 모든 醫學의 知識은 人類의 社會福祉가 되도록 어긋나지 않게 쓸 것을 約束하여 醫療技術의 倫理性和 清廉潔白을 다짐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人間의 가장 重要한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는데 있어 잘못하는 胎兒이거나 삶이 보람이 없는 人間이건 간에 人種과 宗教, 國籍, 社會의 地位 如何를 超越하여 差別없이 이에 奉仕할 것을 盟誓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誓約은 時代的 變遷을 겪어 온 오늘날의 發展된 醫學속에 있어서도 人類愛와 人間性에 立脚한 永久한 醫學倫理로서 醫學이 걸어가야 할 方向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삶은 人間의 基本權으로서 이것의 威脅은 그 社會의 滅亡을 意味한다. 어느 生命이건 또는 肉體의이나 精神의 損傷이건간에 醫學的 研究나 臨床의 診療에서 患者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이들을 自己 몸처럼 慎重하게 대하여야 한다.

人間은 누구나 正義에 대한 權利를 가지고 있듯이 健康할 權利를 지니고 있다. 醫師는 이들의 健康을 保護하는데 있어 때와 場所를 가리지 말고 忠實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眞理는 正義

와 사랑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醫療는 善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結果가 좋다고 하여 惡을 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 社會나 家庭에 있어 必要없거나 害로운 사람이라고 하여 殺人할 수 없기 때문이다. 特히 臨床에 있어 어려운 境遇는 妊娠한 어머니가 健康의 威脅을 받았을 경우인데 胎兒도 生命體이므로 醫療는 同等한 位置에서 두 生命을 救할 수 있는 모든 手段과 方法이 講究되어야 한다.

醫療는 모든 사람에게 公平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醫療의 水準이 問題가 된다. 奉仕의 精神은 無限定하면서도 醫療의 能力에는 限度가 있으므로 善의 義務에는 自然的으로 相對的인 制約을 받게 된다. 故로 患者를 대할 때에는 生命의 保全이란 점에 있어 醫療의 效果가 얼마나 있으며 또한 이러한 措置가 그 周圍와 家族들에게 어떠한 影響을 주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도 醫師는 冷徹한 判斷이 必要하게 된다.

醫療의 根源은 사람에 있으며 그 對象인 사람은 年, 性, 社會的 地位, 財産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人間이기 때문이다. 여기 人類愛가 있고 醫療로서의 動機가 있는 것이다.

## II. 醫療와 社會

著名한 醫史學者 『지제리스트』의 著書에 <醫學序說>이 있다. 이 著書는 醫學史에 있어 單純히 어느 學者가 어느 時代에 무엇을 發見하여 어떻게 醫學發展에 貢獻하였다 하는 歷史的 技術인 所謂 墓碑의 歷史가 아니라, 各 時代에 있어서의 社會的 背景과 醫學이 이 속에서 어떻게 活動하였는가 하는 關係를 뜻있게 論術하고 있다. 이러한 考察은 대단히 重要한 것으로서 技術教育이나 專門的 研究에 치우치고 있는 現代醫學과 患者爲主의 院內診療에 專念하고 있는 最近醫學에 있어 깊이 反省할 問題를 提示하고 있다.

科學文明이 發達하기 以前에 있어서의 醫療는 宗教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人間의 生活과 生存에 있어 重要한 役割을 하여 왔다. 이것은 醫師와 患者와의 關係以前에 그 集團과 社會속에

서 醫療가 이루어졌고, 醫療은 그 社會와 떨어질 수 없는 重要的 意義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自然속에 있어 衣食住를 中心으로 集團을 形成하여 살아왔던 人間은 産業革命으로써 社會의 變革을 가져오게 되었고 技術의 發達は 醫療과 社會間에 있어 새로운 問題를 惹起케 되었다. 歷史의 西歐의 醫療은 오랜 歲月동안 基督教의 博愛精神에 影響을 받아 庶民들과 旅行者들을 爲한 施療를 하여 왔고, 東洋에 있어서는 貴族社會를 위한 醫術로서 存在하여 왔다고 흔히 말하고 있으나 實際東洋에 있어서도 醫療은 그 本質로 보아 庶民속에서 發達되어 왔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現代科學의 發展에 발맞추어 醫學도 科學의 한 分野로서 技術과 學問에 있어 高度의 發展을 거듭하여 生體의 構造와 機能을 알게 되었고 이에 影響을 주는 疾病의 原因도 알게 됨에 따라 이를 豫防하고 治療하는데 큰 成果를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각 分野에 있어서의 産業과 技術의 開發과 分化는 社會構造와 經濟體制에 큰 變革을 가져와 都市의 形成은 從來 大家族制度로부터 核家族의 形態로 바뀌었으며 生活의 空間은 縮少되었고 生活의 水準은 消費 物質의 量과 質이 늘고 速度가 빨라짐으로서 새로운 樣相 즉 環境의 問題를 惹起케 되었다. 또한 現代의 醫療의 技術과 施設이 向上됨에 따라 疾病은 豫防되고 壽命이 延長되어 人口問題는 醫學의 새로운 課題로서 登場케 되었다.

이러한 物質文明의 高度의 發展은 人間의 思考를 唯物的이며 巧利的이고 現實의 으로 만들어 넓고 크며 永久한 것에 대한 思索을 잃고 瞬間의이며 近視的이 되어 그날 그날 自己中心의 現實에만 執着하는 人間像을 만들어 내었다. 이로서 人間은 서로 疎外되고 외롭게 된 것이다. 이런 속에서도 西歐의 醫療은 오랜 傳統속에 뿌리박은 民主的이며 自主의인 土臺下에 社會保障制度가 이루어졌고 自由經濟속에서는 連帶責任을 질 수 있는 醫療保險制度가 實現됨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現代醫療의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制度가 이루어지기에는 國民의 社會에 대한 參與意識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經濟的 發展

과 醫療資源의 開發과 分配가 있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 그러나 醫療가 社會속에서 社會責任下에 이루어질 수 있는 制度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것으로서 醫療의 問題가 解決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經濟的 方式에 의하여 누구나 疾病의 豫防과 診療의 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醫學이 그 社會속에서 指向하고 있는 모든 問題가 解決된 것도 아니고 理想的 目標의 達成을 위하여는 더 어려운 많은 問題들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醫學의 發展過程을 볼 現代醫學은 細胞, 組織臟器를 中心으로 한 病理學으로부터 始發하여 病因의 主體인 病原體의 發見으로서 微生物學이 體系를 이루었고 또 人體의 生理와 生化學的인 機能이 究明됨에 따라 生理學과 生化學이 獨立되어 臨床診療에 큰 뒷받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醫學의 發展은 自然的으로 각 分野에 따라 專門的인 敎室의 體系가 形成되어 臨床을 뒷받침하는 學科를 基礎醫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診療에 從事하는 學科를 臨床醫學이라고 稱하게 되었는데 각 學科는 醫學이 發展을 거듭함에 따라 그 속에서도 더욱 分化되어 가고 있다. 分化는 發展을 意味하면서도 그 本來의 原形을 잃애고 그 目標을 흐리게 하는 수가 많다. 高度로 分化된 오늘의 醫學은 元來 醫療의 目標에서 벗어나 人間을 움직이는 物質로서만 觀察하고 總合된 社會속의 人間을 極히 部分的이거나 斷折的으로 또는 近視眼的으로 觀察하여 診斷하는 잘못을 犯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醫學뿐만의 誤謬가 아니라 現代社會의 各分野에서 저지르고 있는 共通된 過誤이기도 한 것이다. 人間에게 그 物件이 왜 얼마만큼 必要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最高의 技術로서 값싸고 빠른 時間에 많이 만드는데에만 沒頭하는 것이 現代人의 思考方式인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醫學은 社會속에 있어 社會를 위하여 참된 方向 感覺을 잃고 있다. 더욱기 우리나라 醫學의 發展過程을 보면 技術로서 導入된 現代醫學은 自由企業으로서 發展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社會와 遊離되고 社會를 모르며 社會속에서 일하지 못하는 險難한 길을 헤메

고 있다.

이제 醫學은 社會醫學으로서 本然의 姿勢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100年前 偉大한 醫學者였던 「월호」가 醫學은 社會科學의 한 分野라고 說破하였던 말의 意味를 되찾아야 한다.

앞으로 醫學教育은 새로운 目標가 設定되어야 하며 醫療는 병든 患者의 臟器나 組織속의 醫學으로 부터 人間과 그 人間이 生活하고 있는 社會로 對象을 바꾸어 健康을 觀察하고 疾病의 原因

을 究明하는 態度的 轉換이 必要하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醫療需給의 體系에 있어서도 새로운 總合된 資源의 動員과 組織的인 體制가 必要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社會의 態勢도 갖추어져야 한다.

이제 高度로 分化된 現代醫學은 그 社會속에서 그 社會를 위하여 醫學本然의 使命을 遂行할 수 있는 새로운 造化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醫學史에 빛날 醫聖 □

루이 · 빠스뚜르

찬란한 業績 너무나 많아

國際勳金으로 紀念研究所 設立

「루이 · 빠스뚜르」(Louis Pasteur, 1822—1895)는 佛蘭西 「돌」(Dole)에서 出生한 化學者이며 細菌學者이다. 1846年 「파리」의 「에콜 · 노르말」(Ecole Normale)를 나온後 Strasburg 大學, 「에콜 · 노르말」 등의 教授를 거쳐 1862年엔 科學院 會員이 되었고 1867년에 Paris 大學 教授를 거쳐 1888년에는 「빠스뚜르」 研究所長이 되었다. 그는 많은 業績을 세웠으며 政府의 施策에 呼應하여 많은 研究를 한 愛國者이기도 했다.

業績中 가장 讚揚할 만한 것은 五年間의 研究 끝에 成功한 狂犬病(Rabies) 혹은 恐水病(Hydrophobia)豫防法發見이 였으며 그外에도 醱酵를 研究하여 菌 특히 乳酸菌에 의한다는 점을 밝혀 그 때까지 알려졌던 自然發生說을 否定하였다.

또 佛國의 수출품으로 有名한 포도주의 부패 防止를 위해 低溫殺菌法(Pasteurization)

을 發見하여 國家에 貢獻했고 곰팡이(mold)發見으로 오늘날 抗生物質을 만드는 토대를 이룩했다. 그 외에 化學 方面에서 酒石酸의 結晶과 그 溶液의 旋光性에 關한 研究를 하여 分子內의 原子配列 및 「반트 · 호프」(Van't Hoff) 立體化學의 基礎도 닦아 놓았고 主要著書로는 <포도주에 관한 研究> <細菌> 등이 있다.

또한 「빠스뚜르」 研究所는 1885年 「루이」의 恐水病豫防法의 完成을 紀念하기 爲하여 1888년에 國際勳金으로 「파리」에 建立한 研究所로 1900년에 擴張하여 生化學研究所, 傳染病院등을 증설, 1931년에 結核 등의 研究室, 1941년에 「Vaccine」 및 「Virus」 研究室을 分設하였다. 現在 16人의 委員으로 構成된 管理委員會에 依하여 自主적으로 運營되고 있으며 微生物學部, 生化學部, 血清治療部의 三部가 있으며 海外殖民地 其他 여러 나라에도 18個의 研究所가 있어 佛國의 醫學發展에 多大한 貢獻을 하고 있다.